

<2016년 3월 20일 주일말씀>

머리는 주다. 너희는 각 지체다 휴거의 이상세계

본 문 고린도전서 12장 25-27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,
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316에 대한 내용 간단히 말해 주고, 주일말씀 시작

◎ 오늘 말씀은 316 이후 섭리사 전체가 어떻게 행하면서
역사를 일으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.

말씀의 주제는 ‘머리는 주다. 너희는 각 지체다.’
휴거의 이상세계’ 입니다.

◎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316 전날,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께 말했습니다.

“사람은 다 다르다고 하지만 ‘얼굴 모양’ 이 조금씩 다르지,
실상 ‘특별한 사람들’ 을 빼놓고는
거의 ‘그 사람이 그 사람’ 입니다.

다 ‘비슷한 인생들’ 입니다.

그러니 사람들을 보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.”

이렇게 ‘사람’ 에 대해 말하며 기도했습니다.

- ◆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.

“그것이 아니다. (잠시 쉬었다가)

사람들을 보고 ‘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.’ 하며
<단순>하게 생각하지 말아라.

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여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.

단순하게 사람들의 겉만 보고 다 비슷하다 생각하고 대하면
각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하고
생명 관리도 제대로 못 하여 생명을 뺏기게 된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이 말을 듣고 기도를 멈추고,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.
오늘은 성령께 들은 내용을 말씀해 주겠습니다.

이 말씀을 들어야 각 사람을 ‘개성’ 대로 대하게 되고,
그리함으로 관리도 잘하여 생명을 살리고,
사람들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전능하신 하나님은 <인간>을 ‘개성’으로 창조하셨습니다.

◆ 쉽게 이해하도록 말해 줄게요.

▶ 비행기, 열차, 자동차, 자전거는 ‘같은 교통수단’이지만,
각각 완전히 다릅니다.

▶ 칼, 톱, 대패는 ‘똑같은 쇠로 만든 도구’이지만,
각각 완전히 다릅니다.

▶ 사람도 ‘얼굴과 몸의 구조’는 다 같지요?

모두 눈 두 개, 코 한 개, 입 한 개, 귀 두 개,
팔 두 개, 다리 두 개... 이렇게 ‘구조’가 같습니다.

그러나 ‘생각하는 바’가 다르니,
구조는 같아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.

한 나라, 한집에서 같이 살아도
각자 ‘생각하는 바’가 다르니 다 다릅니다.

◆ 겉으로 그냥 봐서는 ‘저 사람의 생각’이
자기 생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,
막상 자기 자유의지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
<행하는 것>이 다르고 <희망하고 추구하는 것>이 전혀 다릅니다.

자기는 ‘금장 시계’를 원하여
상대에게도 ‘금장 시계’를 선물한다고 하니,
상대는 ‘그것’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
이같이 <생각>이 다릅니다.

<원하는 것, 희망하는 것, 추구하는 것>이 다릅니다.

곧 <개성>이 다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더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은 <육신>도 ‘개성’ 대로 존재합니다.
또한 <사명>으로 봐도 ‘개성’ 대로 다릅니다.

섭리인 전체도 그러합니다.

개성대로 주 안에서 ‘각각’입니다.

다시 말하면 <주>는 ‘머리’ 이고

<각 사람들>은 ‘각 지체’로서 ‘각각’입니다.

<각 지체>는 ‘각각’이지만,

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‘하나’로 존재합니다.

<각각>이면서 <하나>입니다.

<하나>이면서 <각각>입니다.

- ◆ 사람들은 ‘얼굴과 몸의 구조’는 같지만,
‘얼굴 모양, 몸의 형상’은 개성대로 다릅니다.

이와 같이 <생각>도 개성대로 다릅니다.

<타고난 것>도 다릅니다.

이에 따라 <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>도 다릅니다.

<하나님께서 쓰시는 것>도 다릅니다.

- ◆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형제라도

각각 <생각>도 다르고, <생활>도 다릅니다.

한 가정에서 같이 살면서 같은 밥을 먹어도
각각 <생각>도 다르고, <행위>도 다르고,
각자 <행하는 위치>도 다르고, <하는 일>도 다릅니다.

이는 ‘개성’ 이 다르기 때문이며,
‘삶의 길’ 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

- ◆ 한 형제라도, 한 가족이라도, 한 나라에서 살더라도
각자 ‘생각하는 것, 행하는 것,
행하는 위치, 하는 일’ 이 다르지 않다면,
지구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존재하지 못합니다.

모두 ‘같은 것’ 을 생각하고 행하고,
모두 ‘같은 위치’ 에서 ‘같은 일’ 을 하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.

각자 ‘개성체’ 로 존재하기에

모두 자유롭게 ‘자기 희망’ 을 이루면서 존재합니다.

- ◆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
“모든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.” 합니다.

<육적>으로 보면 그러합니다.

<영적>으로 보면 자세히 보니,
각자 ‘개성’ 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

- ◆ 성경 이사야 11장 6~8절을 보면
하나님은 <이상세계>에 대해 말씀하시면서,
이 땅에 ‘하나님이 보낸 메시아’ 가 오면

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독사와 사자들이
그를 중심으로 모두 하나 된다고 말씀했습니다.

곧 양 같은 사람, 염소 같은 사람, 송아지 같은 사람,
독사 같은 사람, 사자 같은 사람 등
각 개성체들이 주 안에서 모두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.

- ◆ 예수님은 ‘따르는 자들’을 ‘양 떼’에 비유하며,
자신을 ‘목자’라고 하셨습니다.

양 떼들을 보세요.
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각각 개성대로 있습니다.

어떤 양은 물을 마시고, 어떤 양은 먹고,
어떤 양은 잠을 자고, 어떤 양은 눕니다.

목자는 양 떼를 인도할 때
전체를 하나로 모아 안전한 우리에 넣어 주고,
그 안에서 각각 ‘개성’대로 존재하게 해 줍니다.

인생들도 그러합니다.

〈주〉 안에서 하나로 모이게 하되,
그 안에서 각각 ‘개성’대로 사명을 맡기고
각각 ‘개성’대로 이끌어 줍니다.

- ◆ 모두 이를 깨닫고 ‘생명들’을 대해야 됩니다.
그래야 생명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립니다.
- ◆ 각 사람들을 ‘개성’대로 대하려면,
지도자들은 꼭 ‘삼위와 주의 방법’대로 가르쳐야 됩니다.

생명들을 ‘자기 생각, 자기 방식’ 대로 가르쳐서
‘자기 사람’ 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.

<자기 개성>대로 생명들을 지도하지 말고

오직 <주의 말씀>을 주면서 지도하여

오직 ‘삼위와 주의 마음’ 을 갖게 해 주고,
그리함으로 ‘주의 사람, 하늘의 신부’ 로 만들어야 됩니다.

삼위와 주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‘주의 사람’ 으로 키우고,
그다음에는 꼭 각자 ‘개성’ 대로 사명을 줘야 됩니다.

생명들을 개성대로 ‘각각’ 인도하고 관리하며
‘각각’ 사명을 주고 써야 됩니다.

◆ 지금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.

지금 증인도, 목회자도, 지도자들도

<자기 생각, 자기 방법>대로 생명들을 지도하고 만들면,
주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인도할 때
생명들이 잘 못 따르게 됩니다.

오직 <주의 말씀, 주의 교육, 주의 방법>으로 인도하여
모두 ‘하늘 신부’ 로 만들어야 됩니다.

◆ 섭리사 각 교회는

교인들이 ‘목회자의 성격, 생각, 통솔력’ 에 맞춰야 하니,
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.

목회자가 ‘목자’ 가 아니라, 주가 ‘목자’ 입니다.

모두 ‘목회자의 성격’ 에 맞추지 말고,

오직 ‘하나님, 성령님, 성자, 주’ 께 맞춰서
자기 개성대로 커 나가야 됩니다.

- ◆ 목회자 역시 ‘주 앞에 지체’ 입니다.

그러나 ‘생명들을 주의 방법으로 지도할 지도자’ 입니다.

고로 <본인>도 ‘주의 방법’ 대로 계속 성장해야 되며,
동시에 <교인들>도 ‘주의 방법’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.

오직 ‘하나님, 성령님, 성자와 주’ 께 맞추어
<삼위와 주를 닮는 것>을 최고 목표로 두고,
본인도 더욱 차원 높게 변화되고
교인들과 생명들도 잘 지도해 나가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두 증인>도 ‘개성’ 이 다릅니다.

고로 ‘증거의 방향과 내용’ 도 다릅니다.

그러나 역시 오직 <주>를 ‘머리’ 로 두고 합니다.

- ◆ <증거>도 ‘외적 증거, 내적 증거’ 를 해야 됩니다.

<외적 증거>는 ‘건물의 뼈대 세우기’ 와 같고,

<내적 증거>는 ‘건물 안 공사’ 와 같습니다.

이 두 가지를 함으로 ‘건물 완공’ 을 합니다.

- ◆ 고로 <두 증인>은 각자 ‘개성’ 대로 주를 증거해야 됩니다.

- ◆ <내적 증인, 조은 목사>는

섭리사 전반적인 말씀과 교리를 전하고
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
섭리인들의 ‘마음과 몸과 혼과 영’을 만들기 위해
오직 ‘주의 말씀’을 증거합니다.

지금까지 선생과 함께 ‘삼위의 말씀’을 기록하고 정리하며,
오직 ‘주의 심정’을 가지고 <시대 말씀>을 증거했습니다.

처음 단상에 섰을 때부터
선생이 그 증거를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코치했고,
선생이 입으로 전해 준 말씀, 편지로 전해 준 말씀,
글로 써서 전해 준 말씀들을 다 소화하여
성령의 불과 함께 ‘시대 말씀’을 외쳤습니다.

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‘힘’이 있고 ‘불’이 있고,
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녹아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.

◆ <외적 증인, 범석 목사>는

오직 삼위의 구상과 주의 지도에 따라
1000년사 자연성전을 건축하면서 외적으로 증거합니다.

그러면서 ‘외적 증거’도 해야 됩니다.

그러나 그 ‘외적 증거’ 역시, 본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.
항상 ‘주가 써 주는 말씀’을 중심해서 해야 됩니다.

<주가 써 주는 말씀>을 절대 중심하여
그 터전 위에 ‘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’을 전하면 됩니다.

<자연성전 건축>에 대해 증거하더라도
주가 ‘삼위’께 구상을 받아서 인도하니,

그 증거도 ‘주인’ 이 제일 잘 압니다.

고로 어떤 증거를 하든지

오직 <주의 말씀>이 ‘중심’ 이 돼야 합니다.

그 터전 위에 ‘성령이 주시는 깨달음’ 을 증거하기입니다.

◆ <외적 증거>도 <내적 증거>도

모두 ‘성령’ 이 감동을 주어, 하게 하십니다.

성령은 ‘증거의 영’ 입니다.

고로 성령의 감동을 주어 증거하게 하십니다.

◆ <증거>는 ‘사명’ 대로 ‘개성’ 대로 해야 됩니다.

<외적 증인>은 실력 때문에 ‘내적 증거’ 를 못 하고,

<내적 증인>은 분야가 다르니 ‘외적 증거’ 를 못 합니다.

◆ <내적 증인>은 처음부터 영적으로 보고 크고 자랍니다.

시대 말씀에 능하며,

삼위와 주 앞에 절대 믿음과 사랑의 조건을 세워야 하며,

영적으로 주를 증거하는 실력이 탁월하며,

성령의 역사를 불같이 일으키며,

주와 같이 시대 생명들을 휴거시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.

고로 <외적 증인>은 실력 때문에 ‘내적 증거’ 를 못 합니다.

◆ <외적 증인>은 그에 해당되는 분야의 사람이어야 됩니다.

고로 <내적 증인>은 **사명과 분야**가 다르기 때문에

‘외적 증거’ 를 못 합니다.

- ◆ 한글은 ‘모음과 자음’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모음과 자음이 만나야 ‘글자’ 가 됩니다.

<외적 증인>이 ‘모음’ 을 말하고

<내적 증인>이 ‘자음’ 을 말하면

그것이 ‘글자’ 가 되는데 - 곧 ‘성자’ 요, ‘주’ 입니다.

- ◆ 이 시대 사람들을 휴거시키는 데도
<천주 앞에 두 증인>이 있어야 되지요?

곧 ‘시대 대표 선생’ 과 ‘시대 하와 조은이’ 입니다.

이 둘이 천주 앞에 완벽한 조건을 세워야
모음과 자음이 만나 글자가 되듯 하는데,
그것이 곧 ‘휴거’ 입니다.

- ◆ <주 앞에 두 증인>이 ‘사명’ 에 제일 능합니다.

곧 <내적 증인>은 ‘성령과 말씀’ 에 제일 능하고,
<외적 증인>은 ‘그 사명 분야’ 에 제일 능합니다.

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안 변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증거>도 ‘외적 증거’ 와 ‘내적 증거’ 로 나뉩니다.

섭리인 모두 개성대로

<외적 증인>, 또는 <내적 증인>이 되어 증거해야 됩니다.

그래야 모음과 자음이 합쳐서 ‘글자’가 되듯 역사가 일어납니다.

◆ <외적 증거>는 ‘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증거’입니다.

주가 오면,

그 주관권 안에서만 ‘표적과 징조’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

민족과 세상에 ‘주가 온 표적과 징조’가 일어납니다.

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.

이렇게 ‘바깥세상에서 일어난 일들’을

<외적 증인>이 증거해 줍니다.

이쪽을 증거하는 자들은 ‘외적 증인들’입니다.

◆ 또한 ‘찬양, 운동, 예술을 포함한 문화’도
<외적 증거>에 해당됩니다.

이쪽으로 주를 증거하는 자들도 ‘외적 증인’에 해당됩니다.

◆ <내적 증거>는 ‘말씀과 계시’입니다.

◆ 다시 말하면 <내적 증거>는

- ‘시대 말씀’을 증거하는 것이며,
- ‘영의 세계’를 보고 증거하는 것이며,
- ‘삼위의 계시’를 받아서 전해 주는 것입니다.

<내적 증거>는 모두 깨닫도록

특히 ‘진리의 영, 성령’으로 증거합니다.

- ◆ <외적 증거>와 <내적 증거>가 하나 되지 않으면,
늘 사탄에게 당합니다.

- ◆ 성령이 말씀하시기를
“너희가 볼 때는 ‘그 사람이 그 사람’ 같지만,
모두 ‘개성대로 각각’ 이다.” 했습니다.

- ◆ 어떤 일을 하든지 <외적 증인, 내적 증인 조직>이 안 되면,
공격할 때마다 패합니다.

사탄도 꼭 이렇게 조직하고 행합니다.

그런데 우리가 안 하면 100% 패합니다.

- ◆ 주는 절대 ‘두 증인의 증거’를 받아야 <능력>을 발휘합니다.

<한 증인>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

마치 전쟁할 때 ‘육군’만 가지고 하는 격입니다.

보다 내적인 ‘공군, 해군’이 같이 해야 됩니다.

고로 ‘두 증인’을 절대시합니다.

왜요?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.

고로 ‘증인’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.

오직 ‘주가 한 말 증거’이며

그 터전 위에 ‘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 증거’입니다.

- ◆ 삼위일체는 <삼위일체가 땅에 남긴 성자>,
곧 ‘보낸 자’를 통해 행하여 하늘의 뜻을 펴 나가십니다.

삼위일체의 성자가 떠나셨다고,

이제 ‘성자’가 역사를 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까?

316 때 주은혜 계시자가 전한 <성자의 계시> 들었지요?

이것도 ‘내적 증거’입니다.

<성자 본체>는 떠나셨지만,

땅에 남기고 간 ‘그의 육’을 통해 계속해서 행하십니다.

고로 <보낸 자>를 ‘성자’로 보고 행하라고 했습니다.

◆ 성령님은 오직 ‘주를 증거하는 일’을 합니다.

고로 성령님을 ‘증거의 신’이라고 합니다.

땅에서는 ‘조은 목사 입장’입니다.

조은 목사도 늘 말씀을 외치면서 주를 증거하지요?

그러면서 모두 주를 믿고 주를 증거하게 해 줍니다.

성령이 근본으로 역사하시며,

누구에게나 임해서 ‘주를 증거’하게 하십니다.

그리고 <주>는 ‘삼위일체’를 증거합니다.

◆ 모두 <두 증인>을 중심으로 하여

<외적인 자들>은 ‘외적 증거’를 하고,

<내적인 자들>은 ‘내적 증거’를 하며

복음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<내적 증거>인 ‘말씀과 계시’도 더욱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.

- ◆ 더불어 <외적 증거>에 해당되는

‘찬양, 운동, 예술을 포함한 문화’ 도

계속해서 차원을 높이며 ‘시대와 주’ 를 증거해야 됩니다.

이것을 통해 구름같이 많은 생명들이 몰려오게 해야 됩니다.

- ◆ 선생이 예전에 ‘새벽 축구’ 를 나가면,
사람들이 2000명씩 몰려들었습니다.

먼저는 <말씀>을 전하고,

그 후에 <운동과 예술>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펴니,
섭리사가 그렇게도 활발했습니다.

그러니 <말씀>을 중심하여 시대와 주를 증거하되,

대학부, 청년부, 가정국들은

<운동과 예술>로도 활발하게 움직이며 선교하기 바랍니다.

1년 있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못 하니,

지금부터 미리 하기 바랍니다.

- ◆ 선생 나가도 나이 먹어서 못 뛰다고요?

자기중심적인 생각 하지 말고,

어서 자기 몸도 마음도 부지런히 갈고닦기 바랍니다.

- ◆ 선생은 여기서 4년 동안

주일 빼고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뛰면서 연단했습니다.

여기서 운동을 안 했으면,

벌써 몸이 망가져 폐인이 됐을 것입니다.

운동하면서 계속 몸을 연단했기에
섭리인 전체가 해도 못 할 일을 해냈습니다.

- ◆ 선생이 얼마나 뛰었는지 압니까?
7000리 이상을 뛰었습니다.

근육 운동은 100만 번 넘게 했습니다.

- ◆ <몸>이 건강하지 못하면,
<영적인 일>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.

<외적>으로 운동하며 몸을 연단하고,
<내적>으로 기도하며 시대 양식을 받아야
사탄을 물리치고 시대 생명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!

- ◆ 모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,
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섭리를 뛰며 생명을 전도하기 바랍니다.

- ◆ 어서 모두 <몸>도 <마음>도 연단해요!
약하면 못 됩니다.

<몸>은 ‘외적’ 인 것이고, <마음>은 ‘내적’ 인 것입니다.
두 가지 다 강해야 이깁니다.

모두 <몸>도 <마음>도 강하게 연단하여,
공격형으로 축구 하듯 섭리사를 쫓아가야 됩니다!

- ◆ 모두 <영적>으로도 <육적>으로도 역사를 쫓아가야 됩니다.
<시대 말씀>과 <찬양, 운동, 예술을 포함한 문화>입니다.

- ◆ 어떤 사람은 ‘축구’ 만 합니다.
어떤 사람은 ‘예술’ 만 합니다.
그것은 ‘자기 생활’ 에 불과합니다.

〈운동과 예술〉을 가지고

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선교해야 됩니다.

- ◆ 선진국은 ‘운동과 예술’ 이 발달되어서
그것으로 생명들을 모으면 금방 모읍니다.

다른 것을 가지고 교류하려면,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다가
그들이 하는 운동이나 예술이 끝나면 만나야 했습니다.

그래서 선생은 유럽에 가서 〈축구와 예술〉로 청중을 모았습니다.

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‘평화 행사’ 를 했는데,
그냥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.

〈운동과 예술〉을 하면서 〈시대 말씀〉을 전했기에
유럽에 가서 ‘세계평화대회’ 를 하여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예정하신 뜻을 이뤘습니다.

- ◆ 유럽에서 〈축구 예술〉과 〈음악 예술〉을 했습니다.

그 씨가 남아서 현재 ‘세계 교회들’ 이 세워졌습니다.

- ◆ 〈세상의 썩은 예술 문화〉를 못 하게 해 달라고
기도해도 못 막습니다.

그냥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해서는

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다.

섭리 세계가 ‘올바른 문화 예술’

‘삼위께 영광 돌리는 문화 예술’ 을 하면서
계속 예술을 잡아 나가며 <새 시대 문화 예술>을 부활시켜야
<세상의 썩은 예술 문화>가 변화되고 전환됩니다.

- ◆ 운동도, 찬양도, 각종 예술도 생명력 있게 해 나가며
활기차게 선교를 해 나가야
그 발판으로 인해 ‘세상의 썩은 문화’ 로 흐르지 않습니다.

- ◆ 이미 <축구>는 해 나가고 있고,
<노래>도 ‘새 곡’ 과 ‘창작곡’ 을 만들며 해 나가고 있고,
<노래하며 춤추는 그룹>도 해 나가고 있고,
모델, 치어 등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.

이를 알고, 질서 있게 해 나가기 바랍니다.

- ◆ 불을 붙이는 데는 수십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당연히 <시대 말씀>을 중심으로 ‘불붙이기’ 입니다.

<주>를 중심으로 ‘불붙이기’ 입니다.

<시대 말씀>을 중심으로 하여

찬양으로 불을 붙이고, 운동으로 불을 붙이고,

각종 예술로 불을 붙이며 ‘뜻’ 을 이루기 바랍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모두 <영적>으로도 뛰면서

동시에 <육적>으로도 뛰어야 됩니다.

<증거>도 ‘영적, 육적’ 으로 하고,

<자기 관리>도 ‘영적, 육적’ 으로 하고,

<생활>도 ‘영적, 육적’ 으로 하기 -입니다.

- ◆ 섭리인들이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오는데,
특히 자기는 뭘 해야 되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.
다 답을 줍니다.

“어떤 일을 하든지 <몸>이 건강해야 하니 운동해라.
경제도 펴라. 신앙 경영도 해라.” 합니다.

- ◆ 섭리사는 다른 교단과는 달라서
특별히 사업하는 것이 없습니다.

자기에게 ‘기술과 능력’ 이 있으니

아르바이트(part time job)도 하고, 취직도 하고,

부모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물려받으면서 벌어서 써야 됩니다.

선생은 매일 ‘섭리인들의 경제’ 를 위해서
각 개인들까지 놓고 기도해 줍니다.

기도해 줘어도 ‘뛰어야’ 얻게 됩니다.

- ◆ 지금의 가정국들도 처음에는 학생이었습니다.

이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

자녀를 낳아서 현재 자녀들만 1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.

이제 <가정국 조직>이 커졌습니다.

그리고 <장년부>도 계속 전도되어 무리를 이루었습니다.

그러니 ‘섭리사 경제’도 돌아가게 되었고,
‘각 교회 성전’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.

- ◆ 개인 경제, 가정 경제가 잘되라고
선생은 매일 기도해 주며 축복해 줍니다.

그만큼 여러분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.

- ◆ <외적인 일>도 하고 <내적인, 영적인 일>도 해야
두 증인이 하나 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.

<두 증인같이 일하는 자들>이 있습니다.

<외적 파트>, <내적 파트>의 사명자들을 찾아서 써야 됩니다.

이런 자들을 못 찾으면 ‘소경’입니다.

그런 자들을 찾아서 꼭 교회 상황을 보고해 줘야 됩니다.

그래야 일순간에 상황이 좋게 돌아갑니다.

- ◆ 교회에서도, 섭리사에서도 일하다 보면
각자 ‘개성’이 다르니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.

그러나 모두 하나 돼야 합니다.

하나 되지 않으면 ‘**독불장군**’이 됩니다.

이 말은 ‘혼자서는 못 한다.’ 라는 말입니다.

혼자서 섭리사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.

혼자서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습니다.

혼자서 다 잘할 수 없으니,

모두가 하나 되어 협조하면서 행해야 됩니다.

◆ <머리>는 ‘주’ 입니다.

여러분은 모두 ‘지체’ 입니다.

한 지체를 가지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.

머리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하나 돼야 합니다.

◆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.

하나님이 ‘어떤 사람’ 을 통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.

고로 ‘교인들 모두’ 귀히 여겨야 됩니다.

◆ 어느 때는 ‘큰 사람’ 을 통해서 행하시고,

어느 때는 ‘큰 사람’ 이 못 하니 ‘어린 자’ 를 시켜
그가 행하여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.

왜요? 어려도 그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.

◆ 자기보다 남을 낮게 보면 안 됩니다.

자기보다 남을 높게 봐야 됩니다.

그래야 하나님께서 ‘그 사람’ 을 통해

<자기가 원하는 것>을 주십니다.

◆ 1년 전에 교인 170명이 되는 어느 한 교회에 편지하기를
“너희도 ‘광야 성전 생활’ 그만하고
작은 성전이라도 사서 정착해라.

1년 동안 너희 교회에 합당한 성전을 찾아봐라.
그래야 하나님도 주신다.” 했습니다.

1년 후에 ‘다른 교회의 어떤 사람’ 이
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.

편지를 보니, 자기 교회 성전 건물을 찾다가
〈작은 성전 하나〉를 찾았다고 했습니다.

자기 교회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는데,
〈그보다 작은 교회〉가 들어가기에는 좋다고 했습니다.

건물은 깨끗한데 작다고 했습니다.

이 건물을 놓고 기도하니 성령님은
“이 건물은 ‘작은 교회’에 합당하여,
다른 교회 사람을 통해 찾게 하고 연결해 줬다.” 했습니다.

1년 동안 성전 건물을 찾았던 그 교회는 못 찾고,
‘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’ 이
‘전혀 생각지도 않은 작은 교회 성전’ 을 찾아 보고했습니다.

그 ‘작은 성전’ 은
‘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재정’ 과도 맞았습니다.

결국 땅값 정도만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.

- ◆ 하나님은 ‘생각지도 않은 자’를 통해 행하셨습니다.

왜요? 그가 합당하니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.

- ◆ 섭리사 일들도 그러합니다.

<전혀 모르는 자>라도 ‘합당하면’ 그 사람을 쓰십니다.

자기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쓰십니다.

모두 이것을 알고 하나 되어 해야 됩니다.

교회에서도 그러하고, 부서에서도 그러하고,

섭리사 전체도 그러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오늘은 - 사람은 ‘그 사람이 그 사람’인 것 같지만,
자세히 영적으로 보면 ‘개성’대로 다 다르다. - 말씀했습니다.

한집에서 같이 사는 부부라도

하루를 살아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삽니다.

각각 먹고, 각각 생각하고 삽니다.

세계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며, 섭리인들도 그러합니다.

다만 <머리인 주>를 중심으로 ‘뜻이 하나’라는 것입니다.

고로 <주>를 중심으로 ‘개성’대로 사명을 하고 일을 하면서

모두 하나 되어 행하며 ‘뜻’을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!

<말씀 마무리>

◎ 이 말씀에 해당되는 ‘최고 큰 비밀 하나’를 말해 주고
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‘절대 일체’입니다.
그러나 ‘개성으로 일체’입니다.

이 말은 ‘일체’ 되었지만,
<하는 일>은 ‘개성대로 각각’ 이라는 말입니다.

고로 먼저는 의논하여 하나 되고,
행하실 때는 ‘개성’ 대로 ‘각각’ 하십니다.

◆ 눈, 귀, 입은 ‘일체’입니다.
그러나 ‘개성’ 대로 ‘각각 다른 기능’을 합니다.
그러나 서로를 위해 절대 하나 되어 합니다.
섭리인 모두 이와 같이 하기 바랍니다.

◆ 316 때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
하나 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.
축소해서 두 증인이 하나 되었고,
확대해서 마지막 찬양을 할 때도
모두 한목소리, 한마음, 한뜻으로
‘왕의 뜻’을 확실히 꽃으며 마무리했습니다.

◆ 316 때같이 계속하면서
말씀도, 찬양도, 각종 예술도 활발하게 행하며

시대를 잡아 나가기를 축원합니다!